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지출동향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Situation in Korean Households

오승용 | 중소기업지원센터

Seung Yong Oh | Small & Medium Food Business Center

서론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그 여파가 가정에서의 식품소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득수준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인구구성의 변화, 가구유형,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 코쿠닝 및 그레이징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도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특히 소득수준, 연령,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 지출동향과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의 품목별 지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지출 동향

우리 나라 농어가 가구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전가구의 2012년도 월평균 가계지출은 3,216,894 원이며 이중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 759,453원을 제외한 2,457,441원이 소비지출로 사용되었으며 2003년 이후 연평균 4.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나타났다.

2012년도 전국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 주류 및 식사비를 포함한 음식료품비가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비 12.3%, 교육비 11.7%, 수도 및 광열비 10.4%, 의류·신발 6.8%, 보건 6.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2012년 기간 동안 전국가구의 가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지출은 연평균 4.6% 증가

하였으며 그 중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이 연평균 6.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와 같이 음식료품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의 지출증가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음식료품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음식료품비 지출 동향

가구주 연령계층별 음식료품비 지출동향

2012년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주 연령계층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 구성비를 보면 곡류 및

곡물가공품, 수산동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빵 및 떡류, 유제품, 과자류, 커피/음료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의 경우 50대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이하와 50대이며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출비중이 가장 낮아 연령별에 따른 식품의 기호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가구주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동향

2012년도 전국 전가구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Table 1.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unit : won, %)

	2003		2012		연평균 증가율 (2003~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계지출	2,146,888		3,216,894		4.6
소비지출	1,700,015	100.0	2,457,441	100.0	4.2
음식료품비	490,963	28.9	663,768	27.0	3.4
담배	16,653	1.0	18,351	0.7	1.1
의류·신발	112,646	6.6	165,883	6.8	4.4
주거·수도·광열	168,153	9.9	256,147	10.4	4.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8,937	3.5	93,075	3.8	5.2
보건	98,102	5.8	158,854	6.5	5.5
교통	198,399	11.7	301,694	12.3	4.8
통신	125,530	7.4	152,359	6.2	2.2
오락·문화	99,522	5.9	135,691	5.5	3.5
교육	187,298	11.0	288,543	11.7	4.9
숙박	4,328	0.3	6,777	0.3	5.1
기타상품·서비스	139,484	8.2	216,300	8.8	5.0
비소비지출	446,873		759,453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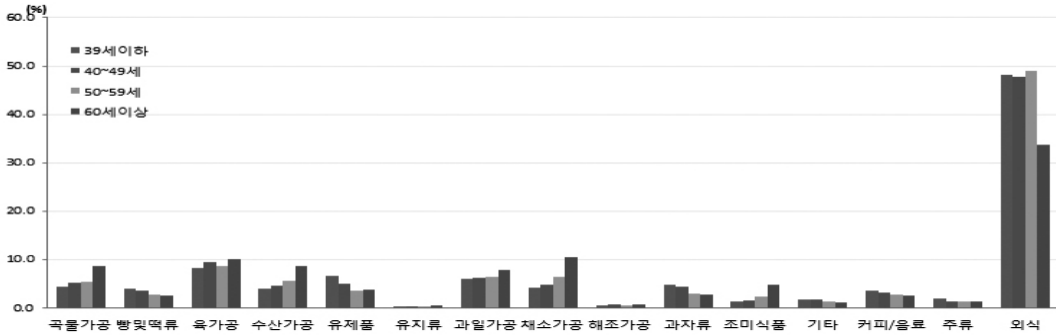


Fig. 1.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by age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2012)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지출 구성비를 보면 곡물가공, 수산가공, 채소가공 및 조미식품은 소득수준이 하위 20% 이하인 소득1분위 그룹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식품의 지출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 및 떡류, 외식비는 소득수준이 상위 20% 이상인 소득5분위 그룹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소득1분위 그룹의 외식비 지출비중은 32.1%로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유제품, 과일

가공, 해조가공, 커피 및 음료, 주류의 월평균 지출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Fig. 2).

품목별 지출동향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부문별 음식료품비 월평균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신선식품의 경우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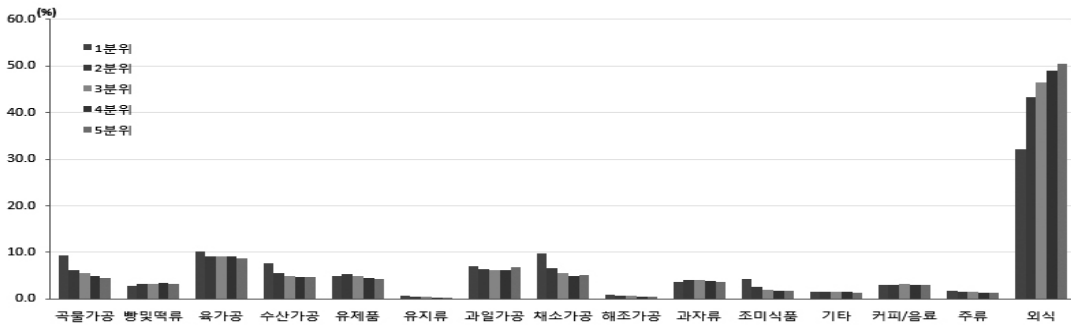


Fig. 2.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by income group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2012)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3.1%에서 2012년에는 25.6%로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조리가 가공식품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은 2003년 15.1%에서 2012년에는 22.4%로 증가했으며 2003~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7.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의 경우도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 및 주류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9%의 증가를 보이는 등 전체 음식료품비 지출이 동기간에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도 식품부문별 음식료품비 비중을 보면 외식부문이 45.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Table 2).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24.3%인 889,577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400~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음식료품비 지출비중은 27.1%, 300~400만원 가구의 지출비중은 28.4%, 100~200만원 가구는 31.2% 등의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식비 지출은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45,724원을 지출하여 전체 음식료품비의 절반인 5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25.7%로 상당히 낮아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전국 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에서 가장 낮고, 50세 이상 가구에서 엔겔계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52%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가장 높은 반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34%를 외식에 지출하여 평균치인 46%보다 상당히 낮아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전국 전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

Table 2.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by food group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unit: won, %)

구분	2003		2007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03-12)
신선식품	171,126	33.1	172,504	30.7	159,587	26.0	170,308	25.6	-0.1
가공식품	78,050	15.1	92,475	16.4	131,466	21.4	148,668	22.4	7.4
음료/주류	21,310	4.1	22,804	4.1	26,250	4.3	30,070	4.5	3.9
외식	233,097	45.1	258,044	45.9	286,571	46.7	305,154	45.9	3.0
기타	13,439	2.6	16,966	3.0	10,158	1.7	10,638	1.6	-2.6
합계	517,020	100.0	562,793	100.0	614,032	100.0	664,838	100.0	2.8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각년도)

Table 3.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come group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2012)

(unit: won,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505,572	1,449,946	2,444,250	3,404,292	4,372,865	7,055,791	3,932,782
소비지출(A)	1,022,713	1,381,844	1,867,397	2,325,451	2,723,844	3,657,299	2,460,520
음식료품비(B)	322,452	431,350	558,167	659,760	738,821	889,577	664,838
외식비(C)	83,171	150,496	239,423	304,247	357,647	445,724	305,154
엔겔계수(B/A)	31.5	31.2	29.9	28.4	27.1	24.3	27.0
외식비중(C/B)	25.8	34.9	42.9	46.1	48.4	50.1	45.9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2012)

출이 746,219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 가구 653,508원, 모자가구 514,627원, 노인 가구 364,465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는 노인가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소득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자가구의 엔겔계수가 24.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소득은 노인가구에 비해 높지만 맞벌이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구성원수가 적어 음식료품비 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엔겔계수는 27.0%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른 외식비 지출 비중을 보면 맞벌이가구가 50.0%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가구

20.0%, 모자가구 38%로 평균 외식비 지출비중인 4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노인가구의 외식비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1인당 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맞벌이가구 105,908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 92,752원보다 높은 반면 일반가구는 88,601원, 모자가구는 72,738원, 노인가구는 34,819원으로 특히 노인가가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한편 2003~2012년 동안의 전국 전가구 음식료품비 지출액을 신선식품,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식품의 경우 쌀, 보리쌀 등 곡물은 2003년 6.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Table 4.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by age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2012)

(unit: won,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소득	3,193,628	3,951,227	4,500,253	4,397,904	2,566,464	3,932,782
소비지출(A)	2,172,125	2,502,926	2,895,832	2,557,450	1,637,062	2,460,520
음식료품비(B)	553,846	653,714	739,562	711,960	516,733	664,838
외식비(C)	288,783	311,193	355,550	346,807	173,694	305,154
엔겔계수(B/A)	25	26	26	28	32	27
외식비중(C/B)	52	48	48	49	34	46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2012)

Table 5. Monthly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by household group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unit: won, %)

구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득	1,324,999	3,123,645	4,882,573	3,637,673	3,932,782
소비지출(A)	1,103,248	2,150,209	2,811,536	2,395,504	2,460,520
음식료품비(B)	364,465	514,627	746,219	653,508	664,838
외식비(C)	72,075	196,394	375,972	290,610	305,154
엔겔계수(B/A)	33	24	27	27	27
외식비중(C/B)	20	38	50	44	46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2012)

하여 2010년에는 3.0%로 떨어졌다가 2012년에는 다시 3.2%로 증가하였지만 2003년 지출비중의 절반에 불과하여 쌀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는 신선식품 중에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유의 지출 비중은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의 지출비중은 2003년 5.3%에서 2012년 3.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지출비중은 2003년 5.4%에서 2012년 6.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는 5.6%의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3년 이후

증가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Fig. 3).

가공식품의 경우 빵 및 과자류의 지출비중이 2003년 4.4%에서 2012년 7.2%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공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식품은 수산가공품으로써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8%에 달하였다. 식빵 및 떡, 라면, 국수류와 같은 곡물가공품의 지출비중은 2.5%로 2003년 이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및 조미료는 2.7%의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우유 및 달걀가공품, 과일가공품,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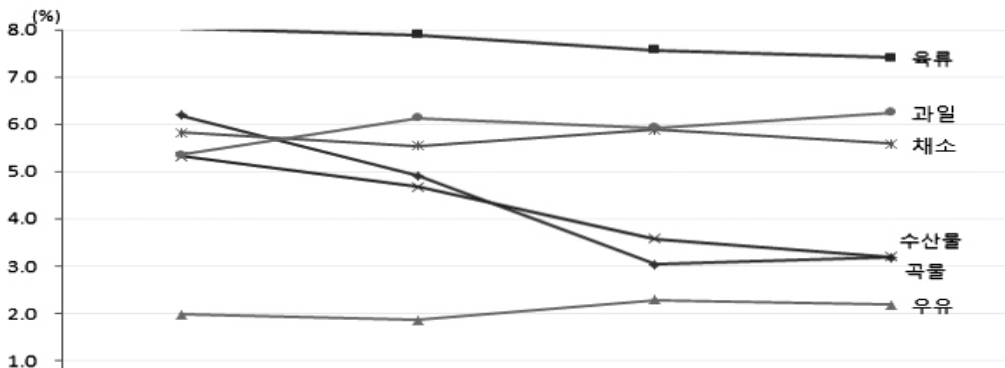


Fig. 3. Monthly non-processed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for all households of all cities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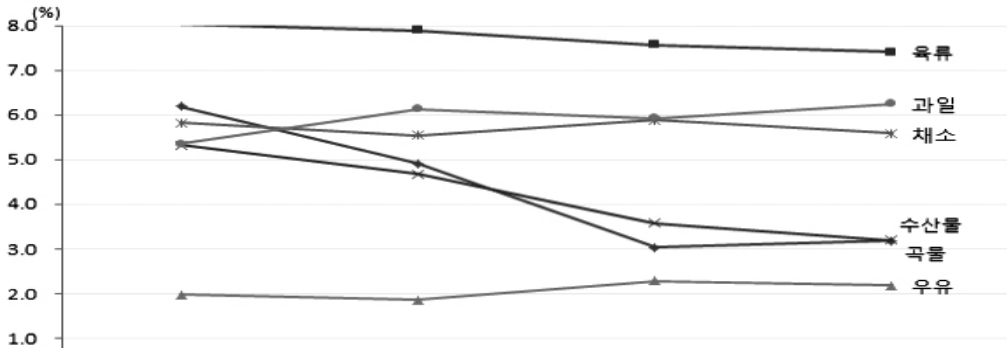


Fig. 4. Monthly processed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for all households all cities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CD」, 2012)

류가공품의 지출비중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채소가공품의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가공식품들의 지출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식품 소비지출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곡류, 수산물, 야채류 및 과일류 구성비가 크고,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빵류, 유제품류, 과자류, 음료 및 외식 구성비가 높아 연령에 따른 기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빵류 및 외식비 지출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곡물가공품, 수산가공품 및 조미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선식품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 및 외식비의 지출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고 맞

벌이하는 가구의 외식비 지출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2인 가구의 구성 비율 증가로 인한 가족의 소규모화는 1인당 조리비용의 상승을 유발시켜 식생활 변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간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조리식품이나 외식을 통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출처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go.kr), 2012, 2
2. 한국식품연구원, 2009 식품산업동향, 2012, 2

오 승 용 경영학 박사

소 속 :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문분야 : 산업정책/마케팅

E-mail : eagleoh@kfri.re.kr

T E L : 031-780-9238